

2023-11-11, 고려대학교 서관 132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와 한국사의 미래>

[토론문]

송상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 인문학(역사학)에 주는 시사

박은재(한림대학교)

인공지능과 인문학을 보는 시선

“인문학은 미래 문명의 나침반”

“AI 시대의 해법은 인문학”

“AI 시대의 인문학적 인재”

.....



인문학을 통한 처세술의 연장선?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달을 목도한 위기감

- 생성형 인공지능은 자아를 가졌나?
- 확률적 사고에서 인간은 얼마나 자유로운가?
- 고유한 인간성은 무엇으로 구성되는가?

인문학 연구 및 교육 현장의 대응

적극적 포용

- 디지털 리터러시 (재)교육 필요
- 적응을 넘어, 새로운 기회 모색

VS.

비판적 접근

- 디지털적 전환이 과연 근본적 방향 전환을 가져왔/오는가?

- ➔ 챗GPT 같은 생성형 AI가 디지털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변곡점이 되리라는 충격과는 별개로 디지털인문학을 둘러싼 논의의 구도를 반복
- ➔ 한 편에는 디지털적 전환의 가능성 환영 / 다른 한 편에는 디지털 방법론에 대한 거리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역사학은 대학에서 점차 자리를 잡아가는 추세

디지털화된 연구 환경의 현실

디지털 방법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하는 것과 별개로 디지털 환경은 인문학 연구의 당연한 환경이 된 지 오래: 전자저널 플랫폼, 웹 아카이브 및 데이터베이스 ...



디지털 방법론이 어떤 근본적 방향 전환을 ‘성취했는지’에 대해 먼저 묻고 검증하기보다, 디지털 연구 환경의 출현, 작동 메커니즘, 발전 과정에 주의를 기울이기

- 학계는 새로운 인공지능 플랫폼에 적응하고 사용법을 익히는 것으로 충분한가?
- 어떤 형태의 학문적 결과물이 산출될지에 대한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을까?
- 학계의 파트너는 상업적인 거대 IT 기업이 되는 것은 아닐까?

디지털 기술로 인한 역사(인문)적 시각 및 경험의 변화

전문역사

- 대량의 역사 데이터를 분석
- 장기간의 추세와 다수의 경향성을 보여주는 거대 서사

인간 경험의 구체성과 내밀함을 드러내는
역사 연구를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

공공역사

- 디지털기술 접목의 오랜 흐름
- 박물관 실감영상, 문화재와 미디어 접목 등 시각 경험 증가

체험 위주의 경험 속에서 역사의 아우라와
진본성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